

인천아트플랫폼은 디자인/공예 창작자와 시민이
함께 창작하는 열린 창작공간 **‘공작소’**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‘일상창작’은 공작소의 운영자와 시민이 나의 일상을 주제로
소소하지만 나만의 이야기와 취향이 담긴 창작물을 만들어보는 프로그램입니다.

‘일상 창작’의 세번째 프로그램은 공스래의
OWN PLATE, OWN PICTURE 그리고 **나의 사물들 : 잇다**입니다.

OWN PLATE, OWN PICTURE

‘식사’의 기본은 ‘식기’! **OWN PLATE, OWN PICTURE**는 나만의 취향,
나만의 식습관이 반영된 ‘나만의 플레이트 만들기’ 프로그램입니다.
참가자들은 바삭 마른 낙엽, 바닷가의 까슬까슬한 돌, 잘 말린 꽃감 등등
내가 좋아하는 자연의 질감을 닮고 나(또는 우리 가족)의 식사 패턴을 반영한
나만의 플레이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. 완성된 플레이트는 우리 가족 식사에 쓰일
그릇이 될 수도, 하나의 심미적인 오브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.

✦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✦

일상에서 그릇을 자주 만지고 사용하는 분들(주부, 셰프 등등)
평범한 그릇은 싫다! ‘나만의 플레이트’에 맛있는 음식 세팅해서 먹고 싶은 분들
무심하게 툭, 공간을 플레이트(리빙 오브제)로 장식하고 싶은 분들
흙 만지고 그림 그리며 머릿속을 비우고 창작에 집중하고 싶은 분들

나의 사물들 : 잇다

나의 사물들 : 잇다는 오래된 보석함, 모서리가 낡은 액자, 이가 나간 접시 등등
소중하지만 어쩐지 찼해진 우리의 일상 사물 가치 연장하기 프로젝트입니다.
참여자는 쓰다가 오래 돼서 깨지거나 벗겨지고 금이 간 물건들을 다양한 도자 장식 기법으로
세공하는 작업을 통해 나의 사물들의 가치를 새롭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.

✦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✦

평범한 일상 사물을 새로운 느낌으로 리폼하고 싶은 분들
이가 나간 컵, 접시를 차마 버리지 못하고 계신 분들
스트레스 타파! 원가를 확 깨고 장식하며 내 기분도 리폼하고 싶은 분들

OWN PLATE, OWN PICTURE

1차시 11.20.수

1회 : 1시 30분 - 3시 30분
2회 : 4시 - 6시

OWN PLATE

- 조형미가 있는 접시 형태 만들어보기

2차시 11.27.수

1회 : 1시 30분 - 3시 30분
2회 : 4시 - 6시

OWN PICTURE

- 소지의 텍스처를 활용해 플레이트에 그림 그리기

3차시 12.04.수

2시 - 4시

도자 마감법과 사용하기

- 도자 마감하기
- 완성한 도자 사용해보기

나의 사물들 : 잇다

1차시 12.07.토

2시 - 5시

오푸스 섹틸레(opus sectile) 모자이크

- 도자 모자이크 장식기법으로 오래된 사물 리폼하기

2차시 12.14.토

2시 - 5시

칸이킨초키

- 손상된 도자기 이어붙이고 금, 은으로 장식하기

공스래는 ‘공예가 스미는 내 삶’의 준말로, 도자 공예가 3인이 모여 결성한
프로젝트 팀입니다. 공스래의 도예가들은 흙 재료에 창작자의 ‘정신’과 사물의 ‘쓸모’를 더해
도자 식기, 도자 오브제, 도자 주얼리, 도자 가구 등을 빚어냅니다. 공스래는 일상 속 도자의
쓰임새를 고민해보며 공예의 아름다움과 가치, 창작의 즐거움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.